

■ 워크샵 ■

〈은총으로 충만한 마리아(Maria Full of Grace, 2004)〉 : 콜롬비아, 미국, 그리고 ‘불법’ 이민 여성의 신체

권은혜

영화 『은총으로 충만한 마리아』는 17세의 콜롬비아 소녀 마리아 알바레즈가 임신한 몸으로 마약 알갱이를 삼키고 소위 ‘마약 노새(a drug mule)’로 미국에 들어와 결국 정착을 결심하는 과정을 다룬다. 왜 마리아는 마약 알갱이가 몸 안에서 터져 중독되어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을 자처하는가? 불법적이고 잔인한 마약 밀매 과정을 세밀하게 다룬다는 점에서 범죄영화로 분류될 수도 있지만 마약 밀매 조직이나 갱 폭력은 이 영화에서 배경에 불과하다. 이 영화를 이끌어가는 것은 마리아와 같은 콜롬비아의 가난한 젊은 여성들의 고달픈 일상, 그리고 이를 극복하려는 이들의 결단력과 용기이다. 마리아와 함께 미국행 비행기에 타고 가는 블랑카, 루시는 교육의 기회없이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딸들이다. 이들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 영화감독 조슈아 마스틴(Joshua Marston)은 저개발 국가 콜롬비아의 가난한 가정에서 젊은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고 마약 밀매라는 위험한 선택의 고비를 넘기고 들어온 미국이 이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보여준다.

주인공 마리아는 할머니와 어머니, 미혼모 언니와 그 아들과 함께 콜롬비아의 작은 마을에서 산다. 이 가족의 주 수입원은 장미 플랜테이션에서 일하는 마리아의 월급이다. 매일 이른 새벽 버스를 타고 마리아와 친구 블랑카는 플랜테이션으로 간다. 여기서는 중년 남성

관리자의 엄격한 감시아래 백여 명의 젊은 여성들이 하루 종일 서서 고글과 장갑을 끼고 장미 가시를 제거해 다발로 정리해 상자에 담는 일을 한다. 장갑을 끼어도 날카로운 장미 가시에 찔리기 때문에 마리아의 손가락에는 반창고가 늘 덕지덕지 붙어있다. 이 영화의 비평 중 하나에서 언급되었듯이, 북미로 수출되어 일반 가정에서 구입하는 장미들은 동네 꽃가게의 주인들이 아니라 콜롬비아 여성들의 손길을 거쳐 아름답게 손질되는 것이다. 단순하고 반복적이고 강도 높은 플랜테이션 노동을 마리아는 무덤덤하고 묵묵하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 임신한 마리아는 화장실 가는 것도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하는 노동 조건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장미를 손질하다 구토를 참지 못한다. 냉정한 관리자는 그녀의 상태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망가진 장미들을 다 씻어 원래대로 해 놓으라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린다. 그 길로 마리아는 플랜테이션 일을 그만 두고 집으로 돌아온다. 임신사실은 숨긴 채 마리아는 어머니와 언니에게 플랜테이션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었고 다른 일을 찾아보겠다고 말한다. 일할 생각이 없는 언니는 애가 아파 약값이 필요하다며 마리아보고 다시 돌아가라고 한다. 어머니는 장미 플랜테이션에서 꽃을 다루는 일이 젊은 여성에게 ‘적합’하고 ‘품위’있는 일이라고 우긴다. 자기와 태어날 아기의 미래를 고민하는 마리아는 현상유지적이고 수동적인 어머니와 언니가 답답하기만 하다.

마리아는 남자친구이자 애 아버지인 후안에게 임신 사실을 털어놓고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본다. 그리고 자기는 언니처럼 애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살 생각이 없다고 마리아는 덧붙인다. 후안이 청혼하자 마리아는 결혼 후 어디서 살 것인지를 의논한다. 후안은 자기 가족이 사는 집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고집한다. 식구가 10명이나 되고 남자형제만 있으며 이미 사촌과 한 방을 쓰는 후안의 집으로 들어갈 순 없으니 마리아는 자기 집에 가서 살자고 한다. 그러자 후안은 여자만 있는 마리아의 집에 가고 싶지 않고 마리아의 어머니에게 잔소리 듣기 싫다고 투덜거린다. 결국 마리아는 후안의 청혼을 거절한다. 답답한 마음에 친구 블랑카와 댄스홀로 가서 춤을 추다가 마리아는 프랭크를 만난다.

어리지만 독립적이고 책임감이 강한 마리아는 도시로 가서 입주

가정부 자리를 찾아보려고 한다. 보고타행 버스를 기다리던 마리아는 모터사이클을 타고 지나가던 프랭크를 만나고 프랭크는 그녀를 태워준다. 잠시 쉬던 중에 프랭크는 마리아에게 일종의 ‘배달부’ 일이라며 마약 밀매에 가담할 것을 제안한다. 처음에 거절하던 마리아는 자기만 바라보는 가족과 혼자서 키워야 할 아이 생각에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 보고타에 도착한 후 프랭크는 마리아를 당구장으로 데려가고 거기서 마리아는 마약 밀매 관리자를 만난다. 마리아를 설득하기 위해 관리자는 선금을 내민다. 당구장에서 나오는 길에 마리아는 루시를 만나고 같은 버스를 탄 이들은 서로 통성명을 하고 루시가 한 동네에 산다는 것을 알게 된다. 집에 돌아온 마리아는 블랑카도 프랭크의 제안을 받고 수락했다는 사실을 알고 말리려고 한다. 블랑카는 한번 다녀오면 집 없이 사는 가족에게 집을 사줄 정도의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말하고 마리아는 할 말이 없어진다. 루시를 만나 마리아는 마약 덩어리를 잘 삼키게 도와주는 약을 받고 포도 알을 목구멍으로 넘기는 연습을 하다 루시가 이 일에 가담하게 된 동기를 듣게 된다. 루시는 미국에 2번 다녀온 적이 있고 갈 때마다 뉴욕에서 사는 언니를 직접 만나려고 했지만 집 앞까지 갔다가 결국 되돌아오고 말았다. 언니가 어떻게 뉴욕까지 올 수 있었느냐고 물어보면 사실대로 말할 용기가 없어서 그랬다고 말하면서 루시는 마리아 앞에서 눈물을 흘린다.

미국행 비행기를 타기 직전에 보고타의 한 약국에서 마리아는 62개의 마약 알갱이를 삼킨다. 비행기 안에서 마리아는 루시와 다른 한 여성도 동행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러나 루시는 비행기 안에서부터 안색이 창백하다. 뉴욕 JFK공항에 도착하기 전 입국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호텔 주소를 잃어버린 마리아는 루시에게 물어보지만 루시는 뉴욕 퀸즈에 사는 언니의 주소를 늘 사용했다면서 그 주소를 알려준다. 뉴욕에 도착한 후 마리아와 나머지 한 여성은 공항 보안 경비원에 걸려 까다로운 취조를 받는다. 뉴욕의 공항 보안 경비원들은 콜롬비아에서 오는 여성 여행자를 일단 ‘마약 노새’로 가정하는 것 같다. 이들은 누가 마리아의 여행 경비를 대고 콜롬비아에서 직업은 무엇이었는지, 미국에 왜 왔는지를 반복적으로 물어본다. 마리아는 언니를 만나러 왔고 남자친구가 여행 경비를 대주었고 전 직업은 장미 플랜테이션에서 장미 가시를 제거하는

일이었다고 말한다.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는 경비원들은 엑스레이 검사를 실시하려고 하지만 소변검사 결과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고서는 검사를 실시하지 못한다. 마리아, 루시, 블랑카는 공항 밖에서 대기하던 차에 실려 뉴저지의 호텔로 끌려간다. 이들은 몸 안에 있는 마약 덩어리를 다 밀어내야 한다. 한편 루시의 상태는 악화되고 마리아는 두 명의 감시자들에게 루시를 의사에게 보여야 한다고 말하지만 무시당한다. 자다가 이상한 소리에 일어난 마리아는 피범벅이 된 욕조를 발견한다. 루시와 감시자들은 사라지고 없다. 루시가 죽었거나, 상태가 위험해지자 루시를 죽여 배를 가르고 마약 덩어리를 꺼낸 후 사체를 은닉하러 간 것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직감한다. 블랑카를 깨우고 상황을 설명한 후에 들어서 밀어내 놓은 마약 덩어리들을 모두 챙겨 이들은 도망친다.

마리아는 블랑카를 데리고 퀸즈에 사는 루시의 언니 칼라의 아파트로 가서 그녀를 만나려고 한다. 블랑카는 루시에게 일어난 일에 냉담하게 반응하며 갱에게 마약을 넘겨주고 돈만 받아내겠다며 마리아를 버리고 혼자 가버린다. 칼라를 만난 마리아는 자신을 루시의 친구라고 소개한다. 지난 5년간 루시와 고향 가족을 만나지 못한 칼라는 반가와하며 마리아가 어떻게 뉴욕에 오게 되었냐고 물어본다. 하지만 마리아는 자신의 얘기도 루시의 얘기도 차마 사실대로 말하지 못한다. 칼라에게 마리아는 일자리를 찾으러 뉴욕에 왔다고 말하고 루시는 콜롬비아에서 비서일을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한다. 머물 곳을 찾을 때까지 칼라의 집에서 머물게 해달라는 마리아의 부탁을 칼라는 친절히 받아준다. 다음날 칼라는 콜롬비아 이민자들의 정착을 도와주는 중개업소로 마리아를 데려다 주고 자신은 일하러 떠난다. 마리아는 중개업자 돈 페르노에게 자신과 친구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사실대로 말하고 도움을 요청한다. 경찰에게 연락하겠다는 말에 마리아는 당황하나 돈 페르노는 마리아의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면서 안심시킨다.

칼라의 집으로 돌아가던 중 마리아는 여성 클리닉을 발견하고서 거기서 진단을 받는다. 마약 운반이라는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위험을 겪었지만 초음파로 태아가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 마리아는 환하게 웃는다. 마리아는 다음 진단 약속을 정해 놓는다. 칼라의 집에 와보니 달리 갈 곳이 없어진

블랑카가 마리아를 기다리고 있다. 블랑카까지 루시 친구라고 하며 숙박을 요청하자 칼라는 점점 마리아를 의심하게 된다.

돈 페르노는 경찰로부터 젊은 여성의 사체 사진을 받고 마리아에게 보여준다. 마리아는 사진 속의 그녀가 루시인 것을 확인한다. 루시를 콜롬비아의 가족에게 돌려보내려면 2500달러가 필요하다. 이제 마리아는 갱들과의 거래를 결심한다. 마리아가 돈 페르노는 만난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지 갱들은 마리아와 블랑카에게 엄포만 주다가 결국 그들 몫의 현금을 넘겨준다. 마리아는 루시에게 제대로 된 장례를 치러주고 유가족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면서 갱들에게 루시의 몫도 요구한다. 경찰에게 연락하겠다는 마리아의 협박에 갱들은 코웃음을 치며 떠난다. 장례회관에서 칼라를 만난 마리아는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칼라는 싸늘한 시체로 돌아온 여동생 앞에서 오열한다. 마리아는 루시를 콜롬비아로 보낼 비용을 스스로 치른다.

콜롬비아로 돌아가기 위해 블랑카와 공항으로 가던 중 마리아는 다음 날이 산부인과 진찰일인 것을 떠올린다. 출국장으로 들어가려고 줄을 서있던 마리아는 갑자기 줄에서 이탈한다. 그리고 먼저 탑승게이트로 가고 있는 블랑카를 부른다. 블랑카는 마리아를 잠시 응시하다 갈 길을 가고 마리아도 등을 돌려 자신의 갈 길을 간다.

영화를 이끌어가는 것은 마약 밀매와 폭력이라는 무겁고 잔혹한 소재가 아니라 자기 자신, 가족, 그리고 친구들을 향한 사랑과 윤리적 책임감에 근거한 콜롬비아 여성들의 순간적이고 현실적인 선택들이다. 마리아는 돈 때문이라기 보단 가난한 가족의 현실과 태어날 아기의 미래를 위해 위험한 선택을 한다. 그녀가 결국 미국에 남는 이유는 그것이 아이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삭의 몸인 칼라는 마리아에게 콜롬비아의 가족이 그림긴 하지만 거기서 자기 아이를 기르는 것은 상상할 수 없고 태어날 아이가 미국에서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미래의 어머니로서 칼라와 마리아 모두 그들의 아이가 그들보다는 나은 환경에서 자라길 바랄 뿐이다.

이 영화에서는 마리아의 신체는 노동자, ‘마약 노새,’ 임신한 여성이라는 단계들을 중첩적이지자 단계적으로 경험한다. 보다 정확하게 구분하자면 영화 초반부에서는 노동자/임신한 여성, 중반부에서는 ‘마약 노새’/임신한 여성, 그리고 후반부에서 임신한 여성으로 마리아의 신체적 상황은 변한다. 영화 내내 마리아의 신체를 규정하는 상수는 임신이고 마리아는 그녀의 위험한 선택들과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임신 상태를 염두에 두는 어머니로 그려진다.

미국과 콜롬비아가 경제적으로 매우 다른 처지에 있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여성의 신체와 행위에 부여되는 젠더 규범일 것이다. 관습적인 젠더 규범에서 장미 플랜테이션 여성 노동자의 신체와 ‘마약 노새’로서의 신체는 임신한 어머니의 신체와 양립하기 어렵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녀가 처한 현실이 규범과 다르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자신의 신체에 대해 자율적인 결정을 내린다. 이런 마리아를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 블랑카는 루시의 언니를 찾아가 사실대로 말하는 게 도리라는 마리아와 말다툼하는 과정에 ‘임신한 몸에 마약 알갱이를 담은 네가 엄마가 맞냐’고 매섭게 비난한다. 친구의 비난에 마리아는 자기 입장을 변명하지도 죄책감이나 후회를 드러내는 표정을 짓지도 않는다. 마리아가 뉴욕에서 여성 클리닉을 찾아가 상담하는 장면에서 필자는 사실 마리아가 낙태를 하려는 거라고 짐작했다. 그러나 마리아가 초음파 검사를 받으며 미소짓는 다음 장면을 보고 필자가 임신한 십대 여성에 대해 가지는 일반적 편견을 적용했음을 깨닫게 되었다. 위험에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임신한 여성의 신체라는 규범, 임신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위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콜롬비아 여성의 현실, 이 둘 사이에서 마리아는 독립적인 의지로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어머니가 되어간다.

『은총으로 충만한 마리아』의 많은 미덕 중 하나는 투철하고 성실한 리얼리즘이다. 콜롬비아인들과 뉴욕 퀸즈의 콜롬비아 공동체가 사실상 주인공인 이 영화에 사실성을 부여하기 위해 감독 마스틴은 콜롬비아 현지인들과 뉴욕의 콜롬비아 이민자들 중에서 배우를 선발하고 스페인어 각본과 콜롬비아 현지 촬영을 고집했다. 마스틴에 따르면 HBO가 제작에 참여하기 전까지 이 영화는 스페인어 영화라는 이유로 미국 내에서

제작자를 찾는 데 난항을 겪었고 제작 자체만 4-5년이 걸렸다. 출연진의 언어, 에스니시티가 캐릭터와 일치한다는 점만으로 영화의 진실성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마스틴의 각본에는 그가 수년간에 걸친 실시한 현지 조사를 통해 축적한 콜롬비아의 사회적 현실들이 반영되어 있다. 그는 미국인이자 스페인어가 모국어가 아닌 감독으로서 콜롬비아의 현실을 재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가 택한 대안은 배우들의 실제 경험과 콜롬비아식 스페인어를 각본에 녹아나게 하는 것이었다. 마스틴은 배우들 덕분에 자신의 각본과 캐릭터가 더 풍부해지고 사실적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한다. 극중 역할과 실제 삶이 일치라는 면에서 가장 인상적인 배우는 바로 돈 페르노 역을 맡은 올렌도 토본(Orlando Tobon)이다. 실제로 토본은 가장 큰 콜롬비아 공동체가 있어 리틀 콜롬비아라고도 불리는 퀸즈의 잭슨 하이츠에서 작은 여행사를 운영한다. 영화에서 나오는 돈 페르노처럼 토본은 콜롬비아 이민자들의 정착을 도와주고 실제로 ‘마약 노새’로 뉴욕과 뉴저지로 들어왔다가 사망한 사람들을 콜롬비아로 송환하는 일을 하고 있다.¹⁾

이 영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주연배우인 카탈리나 산디노 모레노(Catalina Sandino Moreno)의 연기이다. 콜롬비아에서 연기 지망생이던 모레노에게 이 영화는 배우 데뷔작이다. 마스틴은 마리아를 찾기 위해 8백 명을 인터뷰했다. 모레노를 만나기 전까지 마스틴은 “17세 콜롬비아 소녀의 머리 속에 들어갈” 수 있지 늘 회의적이었다고 고백한다. 마리아를 찾기 위해 실제로 콜롬비아의 작은 마을에서 십대들을 직접 만나보면서도 마스틴은 확신이 없었다고 한다. 모레노는 만나고 나서야 마스틴은 “그녀라면 내가 스스로,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것들을 모두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²⁾

모레노의 마리아 연기가 가지는 설득력을 필자의 부족한 언어로 표현하기란 요령부득이다. 마스틴과 모레노가 함께 만들어낸 마리아는

1) 마스틴의 제작 경험을 다룬 인터뷰를 참고하시오. Rebecca Murray, “Interview with Joshua Marston,” About.com Guide, http://movies.about.com/od/mariafullofgrace/a/maria070704_3.htm (8월 17일 검색).

2) *Ibid.*

그 자체로 상식, 사실성, 솔직함과 진정성을 체화한 인물이다. 모레노의 연기는 마리아가 실존인물이라면 바로 그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일종의 메소드 연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모레노의 연기가 가장 빛나는 장면 중 하나는 공항에서의 취조신이다. 어떻게든 위기를 넘겨야 하는 절박함에서 마리아는 사실처럼 들리는 거짓말을 하고 보안 경비원들도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만 그녀의 일관적이고 솔직한 태도와 표정에 어쩔 도리가 없다. 영화평론가 로저 에버트의 지적처럼 마리아는 “급박하게 돌아가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발견하고 살아남기 위해 상식을 활용하는” 인물이다.³⁾ 이 연기로 모레노는 데뷔작으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로 지명되었고 베를린 영화제를 포함한 여러 국제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다.

마지막으로 영화 제목의 한글 번역에 대해 잠시 언급하고 싶다. 한국에서 통용되는 ‘기품있는 마리아’라는 번역도 타당하긴 하지만 영화의 맥락상 ‘은총으로 충만한 마리아’가 더 적절할 수도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극중 마리아는 카톨릭 신자로 그려지고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성당에 가서 기도드리는 장면이 나온다. 이는 남미 여성 기독교신자들에게 성모 마리아 숭배가 여전히 중요한 종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마스틴은 종종 성모 마리아의 이미지를 빌어 주인공 마리아를 묘사한다. 일단 이름부터가 마리아이고 마리아가 영화 처음부터 임신한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영화 포스터에서 마약 알갱이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고 마리아의 표정은 순수하고 진지하다. 한편으로 영화 포스터의 의도는 마약 밀매와 여성 ‘마약 노새’라는 폭력적인 소재를 완곡하게 표현하여 아이러니를 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 포스터는 은총으로 이미 충만해진 미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두운 현실을 대면하려는 태도를 보여준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한양대학교 eunhyekwon@hotmail.com

3) Roger Ebert, Maria Full of Grace, July 30, 2004. <http://www.rogerebert.com/reviews/maria-full-of-grace-2004> (8월 17일 검색).